

# 로버트 A. 피터슨, 그리스도론, 세션 11, 체계학, 성육신 텍스트, 동정녀 탄생, 누가복음 2장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체계학, 성육신 텍스트, 동정녀 탄생, 누가복음 2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체계학을 실제로 다루는 단계에 있으며, 핵심 구절을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연구해 왔듯이, 우리의 구절은 복음서에 대한 위대한 요한 복음 서론입니다. 우리는 성육신이 요한 복음 전체의 근본적인 전제임을 보았습니다. 그 배경은 특히 창세기 1장이며, 신학적 가르침에 관한 한, 우리는 선재, 성육신 자체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카이아즘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두 가지 은유의 관점에서 가르쳐지며, 참 빛이 세상에 왔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아들의 인간성, 아들의 신성을 연구했고, 성육신을 입증하는 다른 위대한 구절들을 살펴보기 전에 계시자, 생명 주는 자,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요한의 위대한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육신 이전의 아들은 그가 만든 것들의 덕분으로 신을 계시하는 자였습니다. 성육신한 아들은 성육신한 말씀, 육신이 된 말씀으로서 신을 계시하는 자입니다.

그는 세상에 들어오는 참 빛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비추십니다. 이 구절 전반에 걸쳐 예수님은 계시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14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성품, 말씀, 행동에서 영광, 은혜, 진리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은혜와 진리의 신성한 속성은 구약의 배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와 신실함을 말하는데, 그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탁월하게 왔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주의가 산만해졌습니다. 요한은 제가 원했던 단어인 과장법을 사용하고, 자신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내가 와서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주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죄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무죄하거나 죄가 없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를 거부한 죄와 비교하면 그들의 이전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크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구약이 모두 합법적이고 은혜와 진리는 오직 신약에서만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방법은 이 표현, 은혜와 진리가 구약의 표현이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17편에서 그것을 보고,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 하나님의 이름의 근본적인 계시에서 그것을 봅니다. 이것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구약에 은혜와 진리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히브리어와 비교했을 때, 헤세드 베멧, 즉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와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과 비교했을 때, 예수 안에서의 신약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비교해보면 구약이 합법적으로 보입니다.

즉, 아들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폭발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해서 이전의 은혜와 진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과 비슷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바울이 방금 모세의 얼굴에 실질적으로 말했던 이전의 영광을 영광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모세는 얼굴을 가렸어야 했지만요. 매우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곁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어가 과장되었다고 하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지만, 그가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를 알렸습니다. 그는 성육신 이전의 아들이며, 특히 성육신은 요한의 요점입니다. 성육신한 아들은 신을 계시하는 자입니다.

오, 그는 하나님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그의 성격에서, 그의 말에서, 그리고 그의 행위에서 알립니다. 이것은 예수 자신의 입술에서 그의 기적이나 표적에 대해 가장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는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3절, 그는 창조물에 생명을 주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었던 영원한 생명은 로고스에 거주했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모든 차원에서 창조적인 생명을 부여하셨고, 모든 것이 그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셨고,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는 육신을 입으신 분이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는 12장과 13장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봅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새 생명이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인간의 탄생에 대해 세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측면에서 인간의 탄생이 아니라 영적 탄생에 대해 말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새 생명의 언어입니다.

요한 복음 전반에 걸쳐 예수는 계시자이며, 예수는 생명을 주는 자이므로, 그러한 그리스도론적 주제는 다른 많은 주제와 함께 이미 서론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서론에 주제를 하나하나씩 채워 넣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증인 주제는 이미 7절에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은 빛을 증거하기 위해 증인으로 왔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었지만,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 왔습니다.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증거 주제는 5장과 8장에서 강력하게 다루어지며, 여기에 그 서론이 있습니다.

위대한 로마 가톨릭 요한 학자 레이먼드 브라운은 그의 권위 있는 주석인 Anchor Bible Commentary on John에서 저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의 시련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마태, 마가, 누가의 더 광범위한 시련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요약하고, 거기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만 언급할 것입니다. 즉, 그는 예수가 마치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그를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한 거짓 증인들과 대조적으로, 아버지는 그 과정에서 참된 증인들을 줍니다.

그래서 5장, 구약성경, 세례자 요한, 예수의 기적, 예수 자신이 자신을 증거합니다. 나중에 작별 담화, 성령, 사도들이 증인으로 불러집니다. 예수에 대한 증인이 얼마나 많은지 매우 놀랍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불신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거부한 것은 증거나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거부하는 것은 죄였으며, 큰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그랬습니다.

그 주제는 이미 서론에 나와 있고, 사실 서론에 이어지는 구절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 요한의 증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주제가 여기에 소개되고 요한 복음의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위대한 구절이며, 아들의 성육신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 영원한 아들, 말씀, 빛이 우리 중 하나가 되었고, 바울이 그를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을 받아들여 그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요약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초는 성육신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적 성경 전개에서, 오직 두 인간만이 옳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브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도 올바르게 창조되었지만, 그녀는 이 언약의 우두머리 신학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두 아담은 각자의 인종을 결정합니다.

아담, 타락과 죄와 죽음 속의 인류. 그리스도, 모든 종족과 언어와 민족과 국가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구원받은 종족. 하지만 먼저 아담은 모든 사람의 몰락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듭남과 부활의 삶으로 승리와 영생을 가져다줍니다. 이 두 아담 신학은 첫 번째 아담의 창조와 두 번째 사람, 즉 마지막 아담의 성육신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의 진정한 인간성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진정한 인간성입니다.

그렇게 신비롭게도 그는 한 인격 안에서 신과 인간이 되었고, 그는 한 인격 안에서 신과 인간으로 남습니다. 다른 위대한 그리스도론적 구절들은 영원한 아들의 성육신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 행동 방식은 한 구절을 취하고 이 위대한

그리스도론적 가르침 중 네 가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그런 다음 가르침이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교차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취하셨느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발견되사 자기를 낮추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신 자가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적어도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 성육신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죽음, 심지어 십자가 죽음, 문자 그대로, 심지어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낮추는 전제입니다. 성육신이 없으면 속죄도 없습니다.

물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성육신과 속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문맥에서 말씀드린 이 위대한 두 상태의 그리스도론적 구절은 주로 빌립보인들을 겸손하게 하는 모범적인 구절입니다. 빌립보인들은 처음에는 매우 건강한 교회였지만, 이 교회에는 분열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4장 초반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열의 씨앗은 항상 어떤 교회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분열의 씨앗은 우리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영의 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자신을 낮추시고 하늘에 머물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오, 잘 표현된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에 머물렀고 땅에 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육신을 입으셨고 또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으로 남으셨습니다. 삼위일체는 육신에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아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인간이 됩니다. 당신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신비롭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은 이미 그의 세 분이 하나이신 것에서 신비로우며, 성육신에서는 더더욱 신비롭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육신의 신비는 십자가의 신비와 빈 무덤의 신비에 적합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들이 터무니없거나 비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해 능력을 초월합니다.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길과 생각은 너희의 길과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너희의 길과 생각은 너희보다 높습니다.

그러니, 만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하다면, 그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이미 은밀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다고 말합니다.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드러난 것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듣고 있는 몇몇 젊은이들을 위해 손주들을 추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의 맥락에서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사랑과 경배와 믿음과 헌신과 순종과 충실함으로 그에게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4절은 성육신에 대한 우리의 핵심 본문이지만, 유일한 본문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골로새서 1:15-20을 그리스도의 본문의 신성으로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나누어서 가르침과 연관시켜야 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신성, 인간성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화해의 관점에서 구원의 사역을 가르쳐주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분리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육신을 가르치고 있으며, 골로새서 1:15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 아들은 바로 앞 구절인 13절, 두 구절 전에 언급된 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신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박사 과정에서는 더 넓은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박사학위를 두 개나 땀어요. 남편을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하죠. 그녀는 저를 신학교에 보내기 위해 코트 공장에서 재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3년 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더 많은 학업을 위해 나아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전액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잘 해냈고, 그 중 일부는 제가 공부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그녀 덕분이었습니다. 어쨌든, 대학 박사 과정에서 그녀는 친절한 웨이트리스였습니다.

친절한 식당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글썄요, 그녀는 매우 친절한 웨이트리스였어요. 사실, 제 아내는 너무 친절해서 우연히 질투를 유발했어요. 친절한 웨이트리스에게 은달러 상이 수여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몇 달 동안 일한 후에 누가 상을 받았을까요? 맞아요, 제 아내 메리 팻이에요.

어쨌든, 그녀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극복했고,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내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 남자와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젊고 명목상 유대인이었고, 당시에는 고등학교와 소규모 크리스찬 대학 테니스 경력에서 아직 녹이 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테니스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보다 더 강한 선수였고, 그래서 그가 하고 싶어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함께 마가 복음을 읽을 수 있다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금 했고 테니스도 많이 했고, 어느 날, 그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오,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나는 할 수 없었다. 나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번 그것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어느 날, 랜디가 그의 이름이 되었다.

어느 날, 랜디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얻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읽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비유를 말씀하셨고, 랜디는 잠깐만요. 그는 아마 내가 설명을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깐만요, 알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그는 신이 인간이 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고 싶다면, 예수가 하신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인간이 된다면 무슨 일을 하실지 알고 싶다면, 예수가 하신 일을 봐야 하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랜디, 당신은 그것이 성육신이라고 불리는 것을 이해합니다. 신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며 보이지 않는 형상입니다. 성육신은 또한 19절에서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자기에게 화해시키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콜로새서 2장 9절은 루터와 궁극적으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적 원리를 따르며, 신학의 대부분 진리는 아우구스티누스로 거슬러 올라가고, 대부분의 좋은 해석학은 아우구스티누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는 천재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쨌든 루터와 칼빈은 모두 개혁 활동과 성직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얼마나 빛을 졌는지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골로새서 2장 9절은 그리스도 안에, 곧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골로새인들이 2등 시민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교리적 내용 면에서 예수보다 더 많은 것을 지적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가는 방법 면에서 예수가 제공한 것 이상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필요로 했습니다.

콜로새 이단은 아마도 그것이 무엇인지 결코 알아내지 못할 것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이상한 유대인 사업과 이상한 가르침이 섞인 것이며, 그리스의 영향도 약간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생각과 혼란스러운 이단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아들 안에 신성 의 모든 충만함이 육신으로 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그것이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종종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강조했고, 제 대답은 당신 안에 성령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오후 북아프리카에서 성령이 갑자기 부어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왔다면, 우리는 성령을 수천 분의 1로 나눌 것인가요? 아니요, 터무니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한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성령이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사실, 그 구절은 다르게 해석됩니다. 저는 방금 제 해석을 말씀 드렸습니다 .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차이점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더 많은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를 가지고 있고, 우리 둘 다 온전한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육체적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 몸 안에, 우리와 함께 온전한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주하는 인간입니다.

결코 인간일 뿐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그의 인간성이라는 측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주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신자들을 가리키며, 그들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진 남자나 여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에게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적 형태로 거한다고 말합니다 . 그것은 정확히 성육신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그가 성령으로 거한다는 것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는 육체적 형상의 신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신인입니다.

당신이 그의 몸을 가리킬 때, 나는 경건하게 말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1:19이며, 2:9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육신을 가르칩니다. 오,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에게 거하기를 기뻐했거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에게 거하며 육체적인 형태로 거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몸 안에 있는 신입니다. 성경은 어떤 한 구절에 모든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 그것은 영혼이 없는 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그것은 그가 신인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장소일 것입니다.

제발, 요한복음 1장, 골로새서 1장, 빌립보서 2장도 그걸 보여줘요. 하지만 저는 이 장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예수의 신성에 대한 다섯 가지 위대한 역사적 증거가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에게만 어울리는 방식으로 신성한 칭호가 그에게 부여됩니다. 그는 오직 신만이 하는 일을 합니다: 창조, 섭리, 구원, 완성, 선한 슬픔.

이 증거들 중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배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만아들을 세상에 데려올 때, 그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를 경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크리스마스 구절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베들레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가 가고, 올라가고, 앉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세션,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만아들을 하늘 세계로 데려올 때, 그는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경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다섯 가지 위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는 변하는 창조물과는 다릅니다. 그의 세월은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장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나은 곳을 모릅니다. 나는 다른 위대한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놀랍게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2:5에서 18까지 바울은 시편 8편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창조 시편입니다. 저는 그것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쓰고, 창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데, 그가 두 번째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를 구체적으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담과 이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첫 조상의 놀라운 지위가 그들의 영적 후손들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다는 의미에서 예측적일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8절에서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담과 이브에게 복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들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은 모든 새와 물고기와 기어다니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인간 아래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첫 조상에 대해 말할 때 말입니다. 타락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명예는 훼손되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배권, 세상에, 야고보서 3장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우리의 작은 허를 통제할 수 없으며, 전 세계의 인간 정부나 그가 창조한 환경, 그의 세상과의 관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엉망진창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는 모든 것이 통제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게 지음받은 그를 봅니다. 9절.

시편 8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8편은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곧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쓰신 것을 봅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은 죽음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에 의해 위대한 지위를 얻었고, 타락으로 인해 성취되지 못한 지위를 얻은 시편 8편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다시 성취됩니다. 더 큰 방식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언어입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이 언어가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자녀들이 14절에서 혈육을 공유하므로, 그 자신, 곧 아들 도 마찬가지로 혈육, 곧 성육신에 참여하셨습니다. 왜? 죽으시고, 악마를 물리치시고, 그의 영적 아들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16절에서, 그가 돕는 것은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경건 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자들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아져야 했습니다. 어떻게? 성육신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큰 색채로 입증하는 것처럼, 2장에서는 적어도 세 번 이상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세 가지 주제와 일치합니다. 그는 두 번째 아담이며, 새로운 창조의 저자이며, 첫 번째 아담이었습니다(9절, 9절). 그는 Christus Victor, 챔피언입니다(14절, 15절). 그리고 그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자 희생제물입니다(16절~18절).

각 속죄 모티브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성육신에 대한 진술로 소개됩니다. 오, 성경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성육신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성 안셀름은 옳았습니다. 성육신은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이 어딘가에서 온 외부의 계명에 응답하는 것처럼 영원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파괴된 창조물과 반항하는 피조물, 즉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감안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육신은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그것을 축하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동방 교회에서 힌트를 얻어 그보다 더 자주 축하해야 합니다.

동정녀 탄생. 우리는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신의 아들의 선재, 그 다음에는 동일한 것의 성육신, 그리고 지금은 동정녀 탄생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데려오셨을까요? 그는 그의 인간성에 관해서는 마리아의 자궁에서 초자연적으로 잉태되게 하셨고, 그런 다음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유아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제목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적 제목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은 확실히 틀렸습니다. 영감은 이와 같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16은 들이마시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Theopneustos,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내쉬어집니다. 병행, 시편 33편.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것을 만들어냈고, 우리 입의 숨결은 우리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것은 그의 상품입니다. 그것은 그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숨을 쉬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동정녀 탄생은 실제로 동정녀 탄생이 아닙니다. 오, 일부 가톨릭 신학자들은 그것이 기적적인 탄생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는 마리아의 산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교리로 자리 잡은 적이 없어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교리는 바뀔 수 없잖아요? 신학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가 교황의 선포나 공의회를 통해 무언가를 교리로 만든다면 그것은 고정된 것입니다.

미국 가톨릭 신자들이 원하는 것을 골라서 믿고 싶어도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로마에 따르면,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로마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더 나은 건,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는 거야. 출산은 정상이야. 우리는 메리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처녀의 임신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서 우리 주님의 인성을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땅의 먼지로, 이브를 아담의 옆구리로 창조하신 것처럼, 이 위대한 순간,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에, 제가 이 말을 할 때 십자가와 빈 무덤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성육신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성육신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빈 무덤도 없고 속죄도 없습니다. 성육신 자체가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죄 없는 삶과 함께 우리 주님의 십자가형과 부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정녀의 잉태를 가르치는 두 가지 다른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할 때, 저는 동정녀의 잉태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요셉의 관점에서. 누가복음 1장, 불쌍한 마리아.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났다.

어쩌면 당신은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얘, 천사가 나타나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무엇을 바라는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미고나 아미가.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천사는, 좀 더 체계적으로 말하자면, 천사는 성경의 주요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죠? 사실, 그들은 자주 언급되고, 거의 항상 신에 대한 언급으로 언급됩니다. 때때로 그들은 계시를 가져옵니다. 때때로 그들은 심판을 가져옵니다.

때때로 그들은 신의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리는 천사와 천사학에 대한 완전한 교리를 가르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없습니다. 게다가, 신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들었으므로, 사탄을 포함한 나쁜 천사들은 일종의 원초적 반항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은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 사탄학, 악마, 악마학에 대한 완전한 교리를 제공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특히 선한 사람들, 흰 모자를 쓴 천사들이요. 그 나쁜 말장난은 용서하세요. 우리는 항상 다른 것들과 관련하여 그들을 연구할 만큼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이야기의 저자이자 제작자, 감독이자 제작자이고, 예수가 스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연자입니다. 성령은 조연이고, 저는 제가 믿는 사람들을 천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자유주의로 이동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천사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자유주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무대 감독과 같습니다. 그들은 제작의 일부이지만 여성은 아니고, Hallmark 카드에 나오는 작고 뚱뚱한 케루브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 굉장한 남자 전사로 나타나고, 마리아는 오, 여기 사랑스러운 여자가 있구나, 오, 저 귀여운 작은 케루브를 보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죽을 만큼 무서워합니다. 누가복음 1:26,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 달째 되는 날, 세례자 요한의 엄마,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마을로 보내졌는데, 그 마을에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약혼이 우리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것은 약속을 포함했습니다. 아직 성관계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혼으로 깨져야 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진 진지한 관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헌신.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그는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와서 인사했습니다. 마리아, 오, 사랑받는 자여.

인사합니다, 오, 은총받은 자여, 실례합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말에 크게 당황하여 이것이 어떤 종류의  
인사인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이해하지 못해. 엔젤이 말했어, 두려워하지 마, 메리  
. 존재, 네가 요구하는 것을 조심해.

당신은 천사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메리.  
당신은 신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여기 경건한 여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로마의 것에 부당하게 과잉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많은 로마  
가톨릭교도들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죄 없는 잉태 교리는 예수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는 마리아의 태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 교리를 제창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태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죄 없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가 죄가 없다고 말하므로 그는  
죄가 없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곧  
살펴볼 것입니다. 보라, 네가 네 태중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주께서 구원하시다 또는 구세주라는  
뜻이다.

그는 위대할 것이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위대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

아들이라는 언어의 배경은 왕족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다양한 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고, 그는 파라오를 따라갑니다.

너는 내 아들을 학대했어 , 나는 네 아들을 데려갈 거야. 너는 만아들이야 . 파라도는 전혀 기쁘지 않아.

그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잠언서에는 인간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소한 구절이 있지만, 대체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다윗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왕족의 칭호입니다.

차이점은 그가 신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칭호이자 왕의 칭호입니다. 그는 위대할 것이고 신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로 불릴 것이며 ,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왕국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 얼마나 압도적입니까.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처녀야.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했는데, 매우 실용적인 여성적 대답이었다. 그녀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녀는 옛날의 마리아와 같지 않습니다. 그녀는 노년에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신을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사가랴, 세레 요한 , 파파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녀와 엘리사벳이 노년에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신을 믿지 않았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아니요, 마리아는 의심하지 않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솔직한 질문입니다. 제가 처녀인데, 문자 그대로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창세기의 언어입니다. 아담은 이브를 알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관계를 맺는 친밀함의 언어입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이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아기는 당신과 조셉의 사랑의 산물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들은 나중에 아이를 가졌고, 그것은 그 산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잉태이고 기적적인 것입니다.

보라, 네 친척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잉태하였으니, 이는 잉태치 못하는 자라 불린 자와의 여섯 달이니라. 하나님께는 처녀 잉태를 포함하여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나는 마리아의 대답을 좋아한다. 보라, 나는 주의 종이라.

그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녀는 신을 믿습니다. 그녀는 경건한 여성이고 우리는 그녀와 구원의 역사에서 그녀의 위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학대에 과잉 반응했고, 제가 그것을 밝히지 않았죠? 네, 제가 시작했습니다.

원죄 없는 잉태는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사실, 바로 여기 Magnificat, 47절에서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나의 구세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혼과 영이 어떻게 평행한지 보세요. 그들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때때로 성경은 그들을 구별하지만, 우리 헌법의 일부로서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요점은 그녀가 그녀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녀는 원죄에서 자유롭게 잉태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구원을 받았고 그녀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그녀를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덜한 경배인 경의를 표해야 할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공동 구속자로 여겨야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녀가 육체적으로 하늘로 승천했고 죽지 않았다고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요. 마리아론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저는 로마 가톨릭인 동료 기독교인들에 대한 존경심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짓 가르침이며, 사람들이 가톨릭 가르침 전체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로마 가톨릭 신도 중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뻐하지만, 경건한 교부들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추가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받아야 하며, 그것이 무언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르칠 수 없고, 그것은 마리아론의 그런 측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이 좋은 가르침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11번째 세션, 체계학, 성육신 텍스트, 동정녀 탄생, 누가복음 2 장입니다.